

서평 『시골교회』, 『도시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선 멀고도 긴 여정



뉴스앤조이 취재팀 저
뉴스앤조이



주재일 저
뉴스앤조이(도탈북)

손안에 편하게 잡히는 아담한 책이다. 『시골교회』, 『도시교회』 책 제목도 위압적이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시골교회』의 표지에는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정겨운 모습의 한옥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 구수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려는 할머니 앞에 모여 앉아 눈을 반짝이며 두 귀를 쫑긋 세우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교회』라는 제목은, 분주한 도시의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해 준다.

글들은 쉽게 읽혔으며,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치 추운 겨울날 밖에 돌아다니느라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 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와 같은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들의 탄생 배경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훈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무겁고 암울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책의 탄생 배경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심각성의 정도(‘과장된 것이지 사실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힘들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등등의 주장들), 도래 시기(‘가까이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고질화되었다’ 등등의 주장들), 위기의 원인(‘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동안의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한 우리의 교만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과 목표를 추구한 결과이다’ 등등의 주장들), 해결방안(‘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제는 안으로만 향하던 교회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주목하

고 동참하고 도와야 한다', '이 위기를 계기로 그동안의 비성경적인 모든 행태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들) 등을 두고 주장이 분분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해결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가고, 심지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식의 자포자기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신앙 형태도 늘어가고 있다. 이 책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처한 절망과 좌절, 냉소와 허탈의 상황에서 잉태되어 그들에게 희망과 분발, 열정과 보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획되었고, 의도한 바를 다분히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이라면, 우선 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회의 현실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려고 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교회

에 관한 정연한 이론적 연구물이 아니며, 교회 현상에 대한 치밀한 조사연구도 아니다. 교회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책의 기획자들이 택한 접근법은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하며 직관적이며, 어찌 보면 순진(?)하게도 보인다. 이 책은 실제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무언가 한두 가닥의 실마리라도 잡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전하는 것이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울 뜻을 지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예비교역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목회 현장에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관습적이고 정체된 목회 활동의 무의미성으로 인해 고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보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좋은 상담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목회로 안정되고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



이창국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실천신학대학원 신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수, 기독교대한학교 요셉학당 교장, 영월 주님의 교회 목사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 봉화 소천의 산골짜기에서 호크마 기독교생활공동체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게 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신학자들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생생하고도 치열한 드라마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야 할 진정한 독자는 교회를 섬기며 그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노하는, 그러나 교회를 떠나 결코 살 수 없는, 교회를 끄찍이도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교회의 문제들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 기독교인들이 관여하고 참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제까지의 안이하고 초연한 인식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서너 번은 된다. 이 정도면 교회에 대한 일종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교회에 대해 눈먼 사람들이다. 우선 자신의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들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별다른 고민이나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혹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관찰에 머무르기 쉽다(예컨대 교인이 몇 명이며,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선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지 등등). 그런데 이 두 책은 기자들이 오랫동안(길게는 10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살펴보고 파헤쳐서 요령 있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얻기 힘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자부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도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교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검토해 보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요약

『시골교회』는 모두 17개의 교회를, 『도시교회』, 『도시교회2』는 각각 10개 교회씩 모두 20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지역과 형편, 사정과 규모, 역사,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교회들이라 어쩔 수 없이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모든 교회에서 공통되는 점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든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하나같이 자신들이 자리 잡은 마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로 인해 그 마을과 지역이 행복해지는 존재 양식을 지향한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각 마을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하고(가계가 없는 섬마을에 다양한 생필품을 파는 인기 만점의 무인가게를 세우고 운영하는 아차도교회, 목욕탕이 없어 불편을 겪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교회 안에 목욕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천성교회, 지역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주보에 지역 상점들을 광고해 주고 쿠폰북을 만들어 전도에도 활용하는 상도제일교회, 제대로 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을 동시에 교육하고 섬기는 아름다운주님의교회 등등), 사회적 약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며(맛벌이로 인해 방치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 이주민과 노숙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음식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건강도 돌보는 활동 등등),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삶의 비전을 제시 (공동체성 증진을 위해 신협과 생협 등을 조직해 운영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농사법을 소개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교실들과 도서관 등을 통한 봉사 등등)하기도 하는 등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을 섬기고 있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결코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으며, 그 활동들을 전도의 수단으로조차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지역민들을 섬기고 돕는 것 자체를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사실 이러한 진정성을 통해 더 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대형교회나 재정이 풍부한 부자교회들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수십 명에서 백 명 내외의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교회 건물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필요한 낭비들을 줄여 나감으로써 이러한 봉사활동의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끝으로 그들은 겸손했으며, 자신들의 성과와 활동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과연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주의할 점

우리는 여기에 소개된 교회들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과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다. 그것 역시 이 책의 선한 목적과 유익한 영향 중 한 가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독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큰 유익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교회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에 감사하며 찬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고민 또한 더욱 커지고 깊어진다면, 이 책을 정말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새롭고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 책을 기획하고 기록한 분들의 진정한 소원이 아니겠는가?

희망사항

지역교회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뉘고 구별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몸인 보편교회는 나뉘고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다 다르고, 장기가 다 다르며, 근육과 뼈가 다 다르듯이 말이다. 나는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고, 원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할지 상상해 보라! 그러한 그분의 생각과 뜻, 소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들의 성격과 특성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냐?”(고전 12:17)고 반문하던 바울의 질책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는 『도시교회』에 소개된 교회 같지 않은(?) 숨-침교회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교회 시리즈가, 조직교회뿐 아니라 제도권 밖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본디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니 말이다. ☺